백두산 2

조선인민군 창건 70돐 기념 특집

주체91(2002)년 4월 26일

김정일동지는 백두산의 기상과 기질을 타고난 장군입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에 관해 주신 말씀

희세의 위인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조국과 민족 앞에 쌓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주석님의 군건설업적은 세기를 이어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다

≪**김정일**동지는 백두산의 기상과 기질을 타고난 장군입니다.≫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이 그의 온 정신과 온몸에 차념치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는 또한 비범한 군사전략가이며 무적필승의 명장입니다.≫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의 올바른 영도의 결과입니다.…
그의 영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울 수 있는 충성의 전투대오로,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었으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방위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었습니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어난 지략과 영군술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 혁명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백전백승의 담보가 있습니다.≫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자질과 그가 이룩한 혁명업적에 대한 높은 평가인 동시에 그의 영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의 표시로 됩니다.≫

≪그가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인민의 사기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에 또 한사람의 장군, **김정일**장군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나의 명령과 같이 여기고 그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최고사령관의 영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조선인민군창건 70돐 기념

김정일동지는 백두산의 기상과 기질을 타고난 장군입니다
강철의 영장의 불멸의 업적
건군사에 빛날 주석의 현지지도
선군영도로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언
백두의 여장군 **김정숙**여사

강철의 영장의 불멸의 업적

인류사에는 영웅호걸들과 명장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같이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광복한 만고절세의 영웅은 없었으며 강대한 미제의 무력침공을 격파한 강철의 영장은 없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동서고금의 그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군사의 영재이시고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다.

건군절 70주년을 맞는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김일성**주석님께서 군건설위업에 쌓아 올리신 영원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감회깊이 되새겨 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민족수난의 암담한 시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아들딸들로 백두밀림에서 첫 무장대오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었다.

김일성주석님에 의해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참다운 군대를 가지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창건 첫날부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그분의 탁월한 영도하에 백전백승하여 온 영광스러운 혁명무력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군사전략사상은 조선인민혁명군건설과 군활동의 근본초석이었으며 그분의 주체적인 영군술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백전백승의 원천이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백전백승에로 이끄시어 발톱까지 무장한 100만 일제관동군을 멸망시키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성취하시였다.

항일 대전의 승리는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영활무쌍한 지략과 탁월한 영군술의 위대한 승리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항일의 전통에 토대하여 조선인민군을 조국과 민족수호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어 그 어떤 침략자들도 단매에 때려부술 수 있게 강화발전시키시었다.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탁월한 전략전술과 주체의 전법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6.25전쟁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어 미제와 그 추종국가 침략세력을 격멸하시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었다.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 6.25전쟁의 승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세기의 기적이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그토록 어려웠던 사회주의건설시기 백두의 억센 담력과 의지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수고 조국과 민족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켜오시었다.

정녕 **김일성**주석님은 변화무쌍한 지략과 탁월한 영군술로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쳐부수고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다.

군건설위업에 쌓으신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은 또 한분의 위대한 영장이신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더욱 빛나고 있다.

김정일장군님은 백두산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뛰어난 지략과 영군술을 지니신 전무후무한 희세의 영장이시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선군사상을 계승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쪽잠과 주먹밥으로 침식을 하시며 선군혁명영도의 천만리길을 수놓아 가시는 이북군인 모두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김일성주석님의 군건설업적을 더욱 빛내어 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영도에 의해 오늘 조선인민군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정신무장되고 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위대한 강철의 영장을 모시어 이 세상 그 모든 강적들을 다 물리친 무적필승의 조선인민군을 당할 자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대를 이어 영수복, 장군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민족만이 받아안은 행운중의 행운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군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민족의 자주권이 수호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며 민족의 찬란한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것이다.

희세의 위인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조국과 민족 앞에 쌓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주석님의 군건설업적은 세기를 이어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다.

백설웅 - 구국전선
주체91년 4월 25일

건군사에 빛날 주석의 현지지도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광복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무려 45만 6,670여리의 기나긴 길을 줄곧 이으시며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부대의 3,120여개단위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주체37(1948)년 2월부터 주체39(1950)년 6월 전쟁전까지기간에 정규군으로 발전된 우리 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4대강령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인민군부대의 460여개단위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대의 정치사상적 및 전략전술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하며 대부대전과 소부대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옳게 배합하고 산악전과 야간전을 잘할데 대한 사상 등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법을 내놓으시고 전선길을 이어 가시며 륙해공군부대, 구분대들을 전쟁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0년대에 혁명무력강화를 위하여 8만 1,370여리의 로정을 이어 현지지도하신 륙해공군부대, 구분대만도 520여개에 달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70년대 중엽 현대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강의한 혁명정신과 기묘하고 령활한 전술, 무쇠 같은 체력, 백발백중의 사격술, 강철 같은 군사규률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독창적인 5대방침을 제시하시고 륙해공군부대, 구분대들을 련이어 현지지도하시면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함께 105땅크사단을 찾으신 주체49(1960)년 5월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83(1994)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제564군부대방문에 이르기까지 현지지도의 길에 언제나 같이 계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24일

선군영도로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신 **김정일**장군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서거하신 후 이북은 역사에 유례없는 가장 준엄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이북은 전화위복의 새 역사를 펼치게 되었다.

민족최대 국상이후 7년간의 역사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영도, 선군정치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어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도전과 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수며 우리 민족의 안녕을 지켜낸 사회주의 수호전의 7년이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한 기적의 7년이었다.

돌이켜 보면 이 시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연합세력들은 군사적인 공세를 취하는 한편 이북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시도하면서 또다시 ≪특별사찰≫소동을 일으켰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무모한 군사정치적 도발과 압력, 전쟁책동으로 하여 한반도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팽팽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난국은 제국주의반동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강화된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이북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고 사면팔방에서 봉쇄를 강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이북은 제국주의자들의 극악한 경제봉쇄 속에서 몇해째 들이닥친 큰물과 해일, 가뭄 등 파국적인 자연재해까지 입게 되었다. 혹심한 식량난, 연료난, 동력난 등이 잇달아 겹쳐 들었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극렬한 정치, 경제, 군사적 압력, 피눈물의 몽상 3년간과 여러해째 계속된 파국적인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이북은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열백번도 무너지고 말았을 그런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단신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지시고 독창적인 특유의 선군정치의 새 역사를 펼치시어 사회주의조국을 고수하고 민족을 지켜주시며 강성대국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가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4년 11월 불후의 고전적 명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어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견인력, 활력을 논증하시며 조선노동당은 앞으로도 추호의 동요없이 어버이주석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해 나갈 것이라는 불변의 의지를 엄숙히 선언하시었다. 사회주의붉은기를 높이 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과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이북군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현지지도하신 단위수는 1,300여개이며 그중 국방부분이 814개 단위라는 사실, 장군님께서 그 나날 577일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면서 1만 6,694Km를 이어 가신 사실은 참으로 우리 민족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주고 있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넘으신 높고 험한 산발들은 그 얼마인지 다 헤아릴 수 없다.

장구한 인류역사는 한나라 영도자가 몇해 어간에 그렇듯 험난하고 머나먼 전선시찰길을 이어 온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영도의 길은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만이 걸으실 수 있는 애국애족의 길, 헌신의 길로 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영도아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위력 앞에 사면팔방에서 달려들던 제국주의연합세력이 전전긍긍하게 되었고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수령결사옹위를 핵으로 하는 혁명적 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쳐 국민이 그 정신, 그 기풍으로 산악같이 일떠서는 장엄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영도가 있었기에 이북의 군민은 준엄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과시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로 힘차게 내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하기에 우리민중은 민족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영도에 탄복을 금치 못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위기를 막아주었고 이 땅의 우리 민중을 핵참화 속에서 구원해 주었다. 그러니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이북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삼천리강토를 수호하고 온 민족의 안녕을 지켜주는 애국애족의 정치이다.

선군영도가 안아 온 기적을 두고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해외방송 V.O.A까지도 ≪선군정치로 미국의 멸망의 돌파구를 열어놓을 유일한 나라는 이북이며 선군정치로 하여 사회주의로 강성할 나라도 이북≫이라고 하면서 ≪**김정일**영도자의 선군정치가 발산하는 힘의 거대한 폭과 무한대의 깊이를 가늠할 수도 잴 수도 없다는데 워싱턴의 비극이 있다≫고 평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 선군영도와 같은 독창적인 특유의 사회주의정치방식을 창시, 완성하시어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떨치신 만고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와 인류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것이다.

김광철 - 구국전선
주체91년 4월 25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언

≪군대란 단순히 싸움하는 데가 아니라 사상정신적, 육체적 단련의 훌륭한 학교이다.≫

≪총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싸움을 한다.≫

≪적은 무기로 잡는 것보다 먼저 머리로 잡아야 한다.≫

≪과학적인 판단력과 추리력, 풍부한 상상력이 없이는 대담한 작전을 할 수 없으며 대담한 작전이 없이는 적을 타승할 수 없다.≫

≪장수의 지략은 인민대중의 애국심과 결합되어야만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 은을 낼 수 있다.≫

≪관병일치, 군민일치는 우리 혁명군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고상한 풍모이며 그 어떤 침략군대도 가질 수 없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백두의 여장군 김정숙여사

온 겨레는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민족최대, 인류공동의 대경사로 뜻깊게 기념한 환희와 기쁨 속에 건군절 70돌을 맞는다.

이날을 맞는 우리 민중은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신 강철의 영장 **김일성**주석님의 만고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건군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백두여장군 **김정숙**여사의 숭엄한 모습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항일성전에 참가하시어

나라잃은 민족의 비운이 반도삼천리에 무겁게 드리웠던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김정숙**여사께서는 짓밟힌 조국땅과 바람세찬 이국땅에서 망국노의 설움을 골수에 사무치게 체험하셨다.

여사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적인 조국광복노선을 높이 받들고 용약 민족해방성전의 길에 나서시였다.

지하투쟁과 유격구에서의 활동을 통해 견결한 혁명투사로 성장하신 **김정숙**여사께서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조국광복대업을 무장으로 받들어 한몸바쳐 끝까지 싸울 철석의 신념을 안으시고 주체24(1935)년 9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여 항일의 혈전장에 나서시였다.

김정숙여사는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과 노선의 절대적인 신봉자, 가장 견결한 관철자이시였으며 비범한 조직적 수완과 노숙한 영도예술을 지니신 탁월한 정치활동가이시였다.

여사께서는 주체28(1939)년 4월 배신자를 심판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 및 병사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다.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여사께서는 바로 그러한 드팀없는 신념을 지니시고 배신자와 정면대결하던 청봉밀영에서의 나날과 대오안에 일시 패배적인 ≪41년도 바람≫이 불던 시기를 비롯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노선을 옹호고수하기 위해 견결히 싸우셨다.

여사께서는 1937년 여름, 그 다음해 5월과 9월 그리고 1940년대 전반기 여러차에 걸쳐 북부국경일대에 진출하시어 조국광복의 결정적 승리를 갖출데 관한 주석님의 명령을 철저히 관철하셨다.

김정숙여사께서는 600별의 군복을 만들 과제를 비롯하여 주석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지시라면 절대적으로 받아안으시고 그 어떤 어렵고 엄혹한 상황하에서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시는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었다.

김정숙여사께서는 남달리 조국을 사랑하였고 동지들을 사랑하였으며 혁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였다.

이렇듯 **김정숙**여사는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이시였을 뿐아니라 우리 민족이 낳은 불세출의 항일의 여장군, 전설적인 여성영웅이셨다.

수령결사옹위의 화신

백두 여장군 **김정숙**여사께서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시고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맨 앞장에서 높이 치켜드시어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신 충신의 빛나는 귀감이시였다.

여사께서는 주석님의 신변안전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전생애에 걸쳐 수령결사옹위의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시었다.

주체29(1940)년 3월 홍기하골짜기에서 있은 일이라 한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신출귀몰한 전술로 이 골짜기에서 섬멸적인 매복전투를 조직지휘하시었다.

통쾌한 섬멸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동안 여사께서는 주석님가까이에서 전투에 참가하고 계시었다.

그런데 뜻밖의 정황이 생겼다. 한무리의 적이 바로 사령부가 위치한 능선을 타고 접근해 오고 있었다. 여사께서는 재빨리 몸을 날려 딴 방향의 능선으로 뛰어가시며 적을 그쪽으로 유인하시었다.

사령부와 퍽으나 떨어진 지점에 이르신 여사께서는 그놈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모조리 쏴눕혔다. 여사께서는 한달음에 달려온 경위대원들에게 이렇게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다 한다.

≪안심들 하세요.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사하십니다.≫

그런데 경위중대의 한 대원이 여사의 등에 매달려 있는 양재기에서 두개의 탄알자국을 발견하고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여사께서는 자신께서 겪으신 위험은 아랑곳없이 다만 경애하는 주석님의 안전을 지켜낸 기쁨으로 환한 미소를 띠시고 계셨다는 것이다.

여사께서는 그밖에도 무송현성전투와 대사하치기전투를 비롯하여 적탄이 빗발치는 수많은 격전장에서 일신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주석님을 보위하셨다.

민족의 운명이신 **김일성**주석님을 위해 총탄도 뚫지 못한다는 명주솜외투를 만들어 드리시었으며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주석님의 옷을 빨아 몸의 온기로 말려드리신 이야기, 자신은 여러날 끼니를 번지면서도 비상미만은 정히 간수하셨다가 주석님께 매끼 더운 식사를 해드리신 이야기를 비롯하여 **김정숙**여사께서 항일의 그 간고한 나날에 아로새기신 충신의 일화들을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김정숙여사께서는 광복후에도 백두산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 교대없는 호위대원이 되시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보위하셨다.

어찌 그뿐이랴.

광복후 어버이주석님의 건군위업을 받드시어 병기공장도 찾으시고 군인들의 군복견본도 손수 지으시며 조선인민군의 정규무력건설에 온갖 심려와 노고를 다 바치시었다. 그리고 군인들을 수령결사옹위 정신으로 키워주시었다.

5천년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결사옹위하시어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신 백두의 여장군 **김정숙**여사의 고귀한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빛날 것이며 우리 겨레의 가슴 속에 자자손손 영원히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불변의 사격솜씨

김정숙여사께서는 광복후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할 때에도 **김일성**주석님의 뜻을 받들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다.

주체36(1947)년 9월 **김정숙**여사께서 어리신 아드님과 함께 주석님을 모시고 집삼마을을 찾으셨을 때 있은 일이라 한다.

김정숙여사께서 마을여맹원들과 담화를 마치셨을 때 경위대원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여사께 권총사격술을 보여주실 것을 절절하게 말씀드렸다.

한없이 겸손하신 여사께서는 웃으시며 굳이 사양하시었다. 그러자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군인들 모두가 요구하는 것이니 한번 쏘아보라고 하시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도 여사께 권총을 쏘시라고 청을 드리셨다. 더는 사양할 수 없게 된 여사께서는 그럼 한번 쏘아보자고 하시며 경위소대장에게 권총을 가져오라고 이르시었다. 권총을 쥐신 여사께서는 바다쪽으로 몸을 돌리시었다.

군인들은 그제야 여사의 권총사격솜씨를 보게 된 기쁨을 안고 바다에 빈병 3개를 던졌다. 이윽고 ≪땅!≫하는 총소리와 함께 ≪맞았다!≫는 경탄의 목소리가 연거퍼 울렸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어리신 아드님과 함께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사격솜씨는 여전하구만 하고 말씀하시었다.

≪전사의 사격솜씨가 변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김정숙**여사께서는 비범한 사격술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군인들에게 군인은 총을 잘 쏘아야 자기에게 맡겨지는 군사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동무들이 쥔 그 총에는 항일혁명선열들의 고귀한 피와 넋이 깃들어 있어요. 총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을 잘 쏠줄 모르면 몽둥이보다 못해요. 어떤 정황속에서도 나타나는 목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멸하자면 자기 무기에 정통하고 사격술을 부단히 연마해야 해요. 동무들에게는 남반부에 기어든 미국놈을 족치고 조국을 통일해야 할 무거운 임무가 있어요.≫

군인들은 **김정숙**여사의 간곡한 당부를 꼭 실천에 옮길 것을 굳게 결의 다지었다.

김정숙여사의 백발백중사격술은 군인들의 훈련장들에는 물론 통일의 염원을 안으시고 삼일포에 새겨진 ≪조국통일≫의 글발에도 역력히 아로새겨져 있다.

이렇듯 **김정숙**여사께서는 위대한 주석님의 뜻을 받드시는 길에 자신의 한몸을 다 바치시었고 삶의 매 순간순간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었다.

위대한 백두의 여장군 **김정숙**여사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박소영 - 구국전선
주체91년 4월 25일